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

비전(Vision)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과학자 양성

교육목표(Goals)

-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능력을 확립한다.
-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평생자기계발 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Future Ready Ewha Medicine

02 대학소식

- 이화의대 학장의 세번째 편지
- 어린이환경클리닉 및 환경건강연구센터 개소
- 이화의대지 개편소식
- 의과대학 학생홍보단 발대식 개최
- 50&30주년 모교방문의 날
- ESAC강좌 정인숙동문
- 예방의학교실 2년 연속 수상
- KAMC, 의과대학캠프본교 학생 참여

06 특집기사

- 이화의학교육센터 설립

08 학생소식

- 그라츠의대 해외실습기사
- 그리민 동아리 소식
- 이화바스체바이오 수상
- 이진아(의학과4학년)인터뷰

10 교수소식

- 퇴임교원 인터뷰 백승연 교수
- 신입교원 인터뷰 신수민, 최은오 교수

13 기획기사

- 이화-SCL 이정원 센터장 인터뷰
- 이화신진펠로우 송태진 교수 인터뷰

15 동문소식

- 동문수상 및 업적

17 교수동정

- 교수 수상 및 업적

19 의과대학 기금안내



세 번째 편지: Future Ready, Ewha Medicine!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화의대



사랑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가족 여러분께,
2022학년도 1학기를 마친 화창한 여름날, 이화 의과대학 가족 여러분들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새 소식들로 채워진 세 번째 편지 올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22년, 미래 의학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모습을 새 슬로건 “Future Ready, Ewha Medicine”에 담아내어 우리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슬로건은 “이화 의대는 다음세대 의사/의과학자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이미 구축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의학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의사/의과학자 양성의 요람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화의대 홍보단을 발족하였으며, 앞으로 홈페이지 개선,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유튜브 및 캠프 개설 등 이화 의대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2022년 4월에 우리 의과대학에 전문 의학교육 담당기구로 “이화의학교육센터(Ewha Medical Education Center; EMEC)”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화의학교육센터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융복합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화 의과대학의 교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적 지원 기구로, 기존의 의학교육부를 확대하여 의학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 개발, 그리고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과 교수법, 학습방법 및 상담, 학생역량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외 의학교육 관련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이화 의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연구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의대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이화의대 학술상”을 제정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사단법인)심혈관건강증진연구원에서 총 1억 원 규모 (10년간 연 1천만 원씩 기부 예정)의 의과대학 발전기금을 후원하면서,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를 배출한 이화의대의 수월성을 이어온 우수 교원에 대한 지원의 뜻을 전달했고, 이를 반영하여 이화의대 학술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학술상의 취지는 선도적인 의학연구를 통해 이화여대 의과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임교원들을 발굴하여 의학 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후속 연구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수상의 기회가 교원 직급별로 생애 한 번에 국한된 만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학술상으로 그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학기 네 번째 편지에서 반갑게 뵈을 날을 약속하며, 이 소중한 직분을 맡겨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화의대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8월 의과대학 학장 하은희 드림

본교, 이화의료원·SCL과 ‘어린이 환경건강클리닉 및 환경건강연구센터’ 개소

한국 최초 소아 환경전문 클리닉 운영,
환경건강 역학연구에도 힘 쏟을 것



‘어린이 환경건강클리닉’ 및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 개소식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 현판식

본교와 이화의료원,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이 국제적 수준의 환경·건강 증진 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3월 23일(수) 환경·건강 증진 연구를 수행하는 ‘어린이 환경건강클리닉’ 및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어린이 환경건강클리닉’ 및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과 환경의 공존 및 다양한 환경적 위험에 대한 선제대응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린이-여성을 포함하는 전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조사하고 환경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어린이 환경건강클리닉’은 한국 최초로 설립되는 소아 환경 건강 전문 클리닉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성조숙증,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등에 관한 클리닉 검진모형 개발에 앞장선다. 어린이 질환과 환경물질 간의 연관성을 연구, 교육함으로써 국내 소아 및 여성의 환경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제적 환경 연구와 교육을 선도할 방침이다. 함께 설립되는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는 특임교수를 필두로 한 공동연구소 운영을 통해 여성 코호트 구축 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시대 환경건강 제시, 검진 모형 개발 연구,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어린이 환경보건출생 코호트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이날 행사에는 본교 김은미 총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하은희 의과대학 학장과 이경률 SCL 총괄의료원장(SCL헬스케어 회장), 이철 명예원장, 이경원 아카데미원장, 이미경 원장, 백서연 본부장 등 SCL 주요 임직원을 비롯해 김혜순 소아청소년과 주임 교수, 이정원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장, 세계적

석학 루스 A. 에첼 조지워싱턴대 교수, 미셸 L. 벨 예일대 교수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김은미 총장은 축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간의 건강 위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 집단의 건강 영향에 대한 섬세하고 정교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가 임상학과 환경의학의 융합연구 기반인 클리닉-연구소 연계 모형을 바탕으로 환경클리닉 지침개발, 환경 건강 솔루션 제시와 소아-여성 코호트를 구축하여 융합 교육과 연구 개발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경하 의료원장은 “소아 시기의 유해환경 노출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대서울병원 어린이환경건강클리닉은 생활·직업 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각 개인에게 필요한 의학적 평가와 인과관계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정보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CL 이경률 총괄의료원장은 “최근 대기오염 노출과 소아의 질병 발생과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 등 취약계층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환경건강연구센터 개소를 통해 관련 연구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쌓아온 기관의 연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는 ‘어린이 환경건강클리닉’ 및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의 연구 활동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고 발전적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어린이와 성인 모두의 더 나은 건강한 환경을 향한 거대한 도약, 임상 적용 및 공중보건 연구’를 주제로 한 루스 A. 에첼 조지워싱턴대 교수, 미셸 L. 벨 예일대 교수의 특별강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하은희 의과대학 학장은 폐회를 통해 “이화의대와 의료원이 한국 최초로 어린이환경건강클리닉과 병행으로 환경건강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환경보건 분야의 기초연구 뿐 아니라 중개연구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 나아가 국제적인 성과를 내며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홍보실〉

새로운 이화의대지를 소개합니다.



(좌) 1978년 이화의대지 창간호 표지

(우) 2022년 새롭게 변경되는 표지

1978년 창간되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의과학연구소의 공식학술지로 활동한 The Ewha Medical Journal이 새 옷을 입게 되었다. 교내 연구여건의 개선과 연구진작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1978년 이화의대지를 창간한 후 많은 변화를 겪다가 2010년 홍기숙 교수가 이화의대지

편집인으로 취임하면서 국제색인서비스에 등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정 하에 이화의대지의 표지와 내지를 전면 개편하고 논문작성기준을 국제적 표준에 맞추는 노력을 하면서 2011년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KoreaMed와 KoreaMed Synapse에 이화의대지를 등재하게 되었다. 그후 EMBASE와 Google scholar에 등재되면서 국제적인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는 emerging SCI에 등재되어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화의대지는 의학종합학술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일반학술지와는 달리 의학교육에 중심을 둔 편집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국문 논문을 꾸준히 발간하면서 종설의 경우 일반인이나 의학의 초보인 학생이나 전공의 등이 의학일반에 대한 전문 최신지견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신증례를 발간하여 실제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러나 진단과 치료가 까다로운 임상적 예를 영상과 함께 제공하여 임상의가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국제적인 학술지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2022년 7월호를 기점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우선 변화에 순응하는 학술지명의 디자인변경을 시행하게 되었다. 보다 연구지향적이고 활기차며 국제적인 도약을 지향하는 형태의 최신 트렌드를 고려한 디자인이 채용되었다. 과거 인쇄물로 논문을 접하던 독자보다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논문을 접하는 독자층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여 학술지 내지의 편집형태를 2단 편집에서 1단 편집으로 변경하여 가독성이 좋고 시야의 피로감이 적은 형태로 재개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새롭게 오픈되는 학술지 홈페이지(www.e-emj.org)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화의대지 편집인 이령아 교수〉

제1기 의과대학 학생홍보단 발대식 개최



제 1기 의과대학 학생홍보단 발대식이 2022년 6월 21일(화) 마곡캠퍼스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 창단한 의과대학 학생홍보단은 앞으로 이화 의과대학을 알리는 여러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제 1기 학생홍보단으로 선발된 의예과 2학년의 박나영, 백서연, 이윤진, 이채현, 정운서 5명의 학생은 ‘이의랑’이라는 이름 아래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내·외로 이화의대를 알리는데 힘을 예정이다. 활동명 ‘이의랑’은 ‘이화의대’와 ‘우리랑’을 합친 이름으로, ‘이화의대와 함께’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학생홍보단은 학생기자단과 함께 이화의대 정보관리부 소속이다. 이화의대 정보관리부장 이령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서 하은희 학장은 “오래전부터 의과대학 홍보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과대학 학장을 맡게 된 지 11개월 차에 그 꿈을 이루게 되어서 기쁘다. 앞으로 ‘이의

랑' 학생홍보단이 이화의대를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 알려줄 수 있으리라 믿고 응원한다" 고 하였다. 곧이어 이어지는 임명장 수여 이후 홍보단원 박나영 학생은 "사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홍보단까지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 말했고, 이채현 학생은 "동기들과 홍보단 활동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멋진 임명장까지 받게되어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화의대 학생부학장 박미혜 교수, 정보관리차장 심성신 교수, 정보관리부 간사 조수범 교수도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하는 말씀을 전했다. 다방면으로 이화의대를 알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학생홍보단의 향후의 행보가 기대된다.

〈의학과 2학년 정상현 학생기자〉

의과대학 졸업 50주년·30주년 기념 모교 방문의 날 행사 개최



이화의대 졸업 50주년 모교 방문의 날 기념행사가 5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대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동창환영을 시작으로, 의과대학에서 동창소개, 학교 발전 방향 소개 및 장학금과 감사장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21기 동문들(이영주 동창 외 8명)과 하은희 의과대학장, 성시열 동창회장, 교무부학장 정성에 교수, 학생부학장 박미혜 교수, 기획부처장 윤혜전 교수가 참석하였다. 식순은 성시열 동창회장의 인사말씀, 하은희 학장의 학교의 발전 방향 소개, 21기 졸업생의 동창 인사 및 소개, 장학금 전달 및 감사장, 기념품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성시열 동창회장은 "이화 의과대학이 보구녀관에서 시작하면서 135년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오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다. 50년 전에 의과대학을 다니셨을 당시 어려운 나라 사정이었지만, 훌륭한 공부를 하시고, 또 의사가 되어서, 이 나라와 사회, 그리고 미국에도 진출 하셔서 전세계에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이화의 향기를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4600명의 동창들이 사회의 리더로서 항상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데, 좋은 전통을 세워 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졸업기념 50주년을 맞이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학교를 소개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었다. Future ready, Ewha medicine이라는 문구를 통해,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보건 의료 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이라는 의과대학 사명을 밝히며, 사명 아래 비전으로서 의사 및 의학과학자 양성을 강조하였다. 하은희 학장이 강조한 미션은 총 3가지로, 첫 번째 미션은 이화의학교

육센터 설립을 통하여 미래 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의학과학자를 양성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는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지원하고, well-aging 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줄기세포 분야에 대하여 의과대학과 병원이 임상연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미션은 사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조직을 시스템화하여 위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교육과 연구에 대한 포부를 밝히었는데, 먼저 교육의 경우 '미래 의학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을 목표로 의학, 임상, 기초 교육, 의학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미래 의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과 의료원이 함께 협업하여 임상교수들의 교육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경우, LG, 롯데, 코오롱 등의 유수의 기업 및 BT/IT기업과 함께 마곡 엠벨리의 산업환경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화첨단 융복합 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은희 학장은 무엇보다 학교에서 훌륭한 의사와 의학과학자를 만들기 위해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화 의과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임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21기 대표 이영주 동창의 인사말씀이 이어졌는데, "21기 50주년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저희를 초대해주신 하은희 학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졸업하고 이화동산을 떠난지 가 었저기 같은데, 벌써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만에 돌아온 모교는 눈부신 발전을 하여 저희 마음이 한없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후배들이 부럽습니다. 이화의대라는 모교가 있었기에, 저희는 졸업 후 환자를 돌보며, 흔하지 않은 여의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냈으며 모두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의대의 무궁한 발전을 독려해주고 거의 1주일만에 기금 마련에 참여해준 미국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며 본교에 방문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21기 동창 김춘실, 최재화, 이혜경, 정영진, 이정화, 선재숙, 경순표, 김정진 선배님들이 오랜만에 모교에 방문하신 소회를 말씀하였다. 50년전 수학하셨던 동대문 의과대학 시절에 대한 추억과 소아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 의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이대서울병원과 마곡 의과대학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모교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의사 및 의학과학자 양성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하였다. 미국에서 zoom으로 참여한 선재숙, 경순표, 김정진 선배님들도 현재 미국의 삶에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이화의대의 정신을 언급하였다.

한편, 5월 27일(금)에는 졸업 30주년을 맞은 41기 의과대학 동창(92년 졸)들도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후원금 6천만 원을 전달했다. 동창들은 학창시절을 보낸 신촌 캠퍼스와 마곡 의학관, 이대목동병원 및 이대서울병원을 둘러보며 모교 발전에 대한 소회와 후배들을 향한 든든한 선배 사랑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의학과 2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2022학년도 1학기 ESAC 특강 개최

미국 의사 정인숙의 “미국에서 의사하기”



2022년 5월 16일, 이화의대 마곡캠퍼스 게임홀에서 '미국에서 의사하기'라는 주제로 미국 의사 정인숙 동창의 ESAC 특강이 열렸다. 정인숙 동창은 이화의대 37회 졸업생으로, Temple University Hospital (Residency, Internal Medicine), University of Maryland Program (Fellowship, Infectious Disease)을 거쳐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Inova Fairfax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1999년 이후 내과의로 개업하여 활동 중이다. 이번 특강에는 290여 명의 의과대학 재학생(비대면 참석자 포함)과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이화의료원장, 하은희 의과대학장, 박영미 기획부장, 윤혜전 기획차장이 참석했으며, 의과대학 37회 졸업생 강덕희, 김민혜, 류지아, 오지원, 이경은, 정영숙, 조경선, 최윤정(최윤숙), 현진은 동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의과대학 학생대표 백승현, 신정민 학생 2인의 사회로 진행된 특강은 재학생들의 사전 질문들에 대한 정인숙 동창의 답변을 듣는 대담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 동창의 열정 가득한 경험담을 재학생들과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한편 2020년~2021년까지 의과대학에 학생연구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는 정인숙 동창은 "이화의 설립 초기, 미국에서 전해진 국제 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그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다"며, "의학 발전을 위한 이화 의대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적극적인 모교 사랑을 전했다.

ESAC은 Ewha Social Active Communication의 약자로, 이화의대에서는 매년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대외의사소통능력 제고를 위해 의료계 및 사회 각 분야 인사를 초청하여 ESAC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의학과 2학년 정상현 학생기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E-보건학종합학술대회 질병관리청장상 2년 연속 수상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대학원 학생들(시스템헬스융합전공)이 대한보건협회에서 주관한 2022년도 제47회 E-보건학종합학술대회 연구경연부문에서 "잠재적 계층분석을 활용한 청소년기 건강관련행동 유형화와 대사증후



군 점수에 대한 염증 매개분석: 이화 출생코호트 기반"에 대해 발표하여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하였다. 이들은 작년 제46회 E-보건학종합학술대회의 포스터부문에서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BK21 시스템헬스융합전공의 김의정 학생과 박현진 학생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노고로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하다. 무엇보다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예방의학교실의 박혜숙 교수는 이화영아성장코호트를 구축하여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추적관찰하면서 태아시기 성장이 출생 후 질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의과학과 박사과정 김의정〉

‘KAMC, 2022 미래의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의과대학 학생캠프’ 본교 학생 참여



KAMC는 '2022 미래의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의과대학 학생캠프'를 7월 13일~16일까지 3박 4일간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미래의학 학생캠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최첨단 의학 흐름의 변화에 따른 의공학 의료데이터 분석, AI를 이용한 의료정보분석 등을 다루는 실재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이 캠프에 참여한 본교 의예과 1학년 이하의 학생은 "수업에서 공학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의료데이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의료데이터 분석과 의학영상처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앞으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며 캠프에 참여한 소회와 포부를 밝히며, 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의과대학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하였다.

〈의과대학 정보관리부〉

특집기사 | 이화의학교육센터

‘이화의학교육센터(EMEC) 설립’

“미래의학을 주도할 의사·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도약의 기틀 마련”

우리의대(학장 하은희)는 2022년 4월 1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훌륭한 융복합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이념 실천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화의학교육센터(Ewha Medical Education Center: EMEC)를 설립하였다.



5월 10일 이화의학교육센터는 의학관(마곡) 계림홀에서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하은희 의과대학장, 정성애 교무부학장, 정성철 연구부학장 등 의과대학의 많은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우리의대는 1887년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 보구녀관을 뿌리로 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 박예스터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 의학자와 의사를 배출해왔다. 우리의대는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이라는 사명 아래,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과학자 양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해오고 있다. 우리의대는 기존의 의학교육부를 이화의학교육센터로 승격하고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하였다. 이화의학교육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관련 제반 업무, 즉 교육과정 연구개발, 실행, 평가를 담당한다’는 미션 아래 설립되었으며, 조직 또한 센터장 1명, 부센터장 2명, 특임교수 1명, 연구원 1명, 직원 2명(의학교육학교실에서 파견 1명 포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앞으로 이화의학교육센터는 이화의학교육 운영 방안의 핵심과제인 EUMC (Ewha University Medical College) LCT-QC (Learning/ Curriculum/ Teaching – Quality management/ Counseling)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EUMC LCT-QC는 이화 학생 학습역량 강화(L), 이화 의학 교육과정 고도화(C), 이화 교수역량 강화(T), 이화 의학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 구축(Q), 이화의대 상단 체계 고도화(C)의 5개 중점과제와 12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화의학교육센터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교육 전문 전문기관, 최고의 의학 인재 육성의 산실로 우뚝 서고자 한다.



이화의학교육센터 (Ewha Medical Education Center: EMEC) 소개

비전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 전문 기구를 지향한다

미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관련 제반 업무, 즉 교육과정 연구 개발, 실행, 평가를 담당

주요업무

- 의학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 교육, 개발, 자문
- 기초/임상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과 교수법, 학습방법, 학습 상담, 학생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운영
- 국내·외 의학교육 관련 학술 활동과 의학교육 지속발전 방안 수립 및 운영

구성원

구분	성명	담당직무
센터장	편옥범	센터 업무 총괄
부센터장	태정현	센터 관리 및 운영
부센터장	이희성	센터 관리 및 운영
특임교수	정소미	기획 및 연구
연구원	고아라	CBT 및 연구 지원
직원	배현지	교수학습지원
직원	홍가영	교수학습지원
간호사	김선희	CPX, OSCE 지원(마곡EMSC)
간호사	이주연	임상실습 지원(목동EMSC)

운영위원회

구분	성명	직위
위원장	하은희	의과대학장
위원	편옥범	교육부학장/이화의학교육센터장
위원	정성애	교무부학장
위원	태정현	이화의학교육부센터장
위원	권복규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위원	양현종	전임 의학교육부장
위원	이지수	전임 의학교육부장
위원	최윤희	의예과장
위원	천윤희	의과대학 행정실 팀장
위원	정소미	이화의학교육센터 특임교수
배석	고아라	이화의학교육센터 연구원

이화의학교육센터는 의학관(마곡) 326호에 있습니다.
교육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6986-6012로 전화주세요.
이화의학교육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2022학년도 첫 번째 신입교원 워크숍’ 개최

이화의대 발전방향, 학사·인사제도, 이화의대 교육과정, 변화된 의사 국가고시 등 안내



우리대학은 신입교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5월 10일 이화의학교육센터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과대학 교육 및 교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의과대학 교수로서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엔 정민경 교수, 이정원 교수, 홍경숙 교수, 송승환 교수 등 신규임용 전임교원 7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의과대학 발전방향(하은희 의과대학장), ▲의과학연구소 소개(정성철 의과학연구소장), ▲학사 안내 및 교원종합평가(정성애 교무부학장, 정혜선 교무부차장), ▲의과대학 교육과정 소개(양현종 이화의학교육센터 운영위원), ▲CPX-의사 국가고시 실기 변경(권형주 CPX위원장), ▲CBT 소개 및 시험문항 출제(이혜진 임상교무부장)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이날 참석한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이화의대의 새로운 인재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의력과 공감능력으로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의사·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의학교육 세미나 개최

의과대학, 이대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실시간 화상 연결 “의학교육 최신 트렌드 공유의 장 마련”



이화의학교육센터(EMEC)는 의학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우리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함께 고찰하고 논의하기 위해 ‘의학교육 세미나’를 5월

‘2022학년도 문항출제 워크숍’ 개최

문항출제 실습과 피드백을 통한 시험문항 내실화 도모



우리의대(학장 하은희)는 6월 28일 의학관 (마곡)에서 「2022학년도 문항출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화의학교육센터가 교수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의사국가고시의 최신경향을 토의하고 문항개발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하였으며 17시부터 21시까지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의과대학 시험문제 출제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워크숍에 내과, 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에서 35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워크숍 진행은 ▲의사 국가고시 현황(이혜진 임상교무부장), ▲의사 국가고시 문항출제(권형주 임상교무부 차장), ▲문항출제 실습(Dry lab), ▲조별 문항 검토(PBL room), ▲전체 발표 및 피드백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개인별 실습시간과 조별 토론시간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며, 참석 교수자가 워크숍 중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이에 대하여 이혜진 임상교무부장, 권형주 임상교무부 차장, 편옥범 이화의학교육센터장이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편안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참석 교수들과 문항 검토 교수들 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한 교수들은 “평소 문제 출제 시 잘 몰랐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문제 출제 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강의내용이 인상 깊었다”, “직접 출제한 문제들을 함께 피드백 하는 시간이 유익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학생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학교육 내실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과 6월에 개최하였다. 2022학년도 첫 번째 의학교육 세미나는 5월 26일 개최되었으며, △ 의학교육에서 ‘3D 아틀라스’ 활용 사례 (신정아 교수, 해부학교실), △ 의학교육이란 무엇인가? (권복규 교수, 의학교육학교실), △ 2022년 ‘한국의학교육학회 (KEMC)’ 주요 내용 (정소미 특임교수, 이화의학교육센터)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의학교육 세미나는 6월 30일 개최되었으며, ‘의학교육에서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는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최형진 교수가 △ 가상현실 교육의 장점, △ 가상현실 기술 교육 사례, △ 해부학 실습 적용 사례의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우리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인 권복규 교수와 해부학교실 한승호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토의하였다. 향후 의학교육 세미나에서는 의과학자 양성 방안, 성과 바탕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실제적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하여 의과대학, 서울병원, 목동병원을 연결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이화의학교육센터 정소미 특임교수〉



그라츠의대 해외선택실습 다녀오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실습 학생 파견이 중단되었던 것도 잠시,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의대로 이화의대에서 본과 4학년 박금강, 이서연 학생이 파견되어 2022년 1월 31일~2월 25일 해외선택실습을 수료하였다.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선택실습에 대해 두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Q 해외실습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박)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홀스테이 등을 통해 항상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외, 그 중에서도 의대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관심이 생겼습니다. 성격도 외국인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사실 의대생 신분으로 해외에서 병원실습을 하는 것은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해외병원의 경우 병원실습과 의학교육은 어떻게 다른지, 만약 제가 외국에서 진로를 잡게 된다면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할지 고민해보기 위해 해외실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다른 학교 중에 그라츠 의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박) 저도 그라츠 의대의 경우 노인의학 외에도 완화의학 분과가 따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저희가 해외 선택실습을 갈 수 있는 학교 리스트에 미국, 오스트리아, 대만, 태국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럽의 의료시스템이 특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관심있던 분야 중에서 신경과의 노인의학 분야가 전공으로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그라츠 의대에서의 생활 중 이화여대와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박) 한국의 실습은 교수님 또는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주로 각 주의 일정표를 만들어주시고, 과제와 평가기준을 정해서 주시는데 비해, 그라츠 의대에서는 필수 과제만 정해져 있고, 학생 개인의 선호와 역량에 따라 얻어가고 싶은 만큼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또 본과 4학년의 경우 한국은 일주일에 하나의 과에서 실습을 하여 모든 과를 경험해볼 수 있지만, 그라츠의 경우 내과, 수술과, 기타과 총 3곳을 선택하여 6주간 비교적 오래 실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이비인후과적

질환에 대해 심도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실습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술 프로토콜이나 술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랐던 점은 없고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라츠의대 병원의 경우 각 과마다 건물이 따로 하나씩 있어서 응급실이 모든 과에 있었던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Q 가기전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실습에서 달랐던 점이 있었나요?

A 박) 그라츠의대에서 이비인후과, 신경외과와 같이 수술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비인후과 수술의 경우 단순 참관이 아니라 스크럽도 세워주셨고, 환자에게 직접 수처 타이도 시켜주시는 등 수술에 보조를 서면서 직접 참여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차별하는 느낌은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환영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수술실 외에도 관련 검사실이나, 외래의 경우에도 환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신체 진찰을 하는 등 실질적인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각 과에 실습을 도는 그라츠의대 학생들의 수가 적고, 오랜 기간 실습하다보니 실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Q 해외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박)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다보니 실습파견 취소의 불확실성이 조금 걱정되기는 했는데, 그라츠 의대 측 행정실에서 정말 꼼꼼히 챙겨주시고 학생들을 꼭 오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조금 늦게 결정이 되어 기숙사를 나중에 배정받았는데, 후배님들은 기숙사의 경우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조금 먼 거리의 기숙사를 배정받긴 했는데 출퇴근길에 현재의 광경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이) 영어의 경우 생각보다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가 유일한 아시아 학생들이긴 했는데, 그라츠 의대의 경우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을 굉장히 환영해주시고 많이 가르쳐주려고 하셨어요.

Q 해외실습을 가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해외 실습을 다녀오고 싶은 학생들이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 있을까요?

A 박) 코로나로 인해 해외실습이 가능한지 불확실한 면이 있었는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학교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학적 지식을 국적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토의해볼 수 있었다는 것, 해외의 병원 실습 환경을 학생 때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후배님들도 꼭 도전해보세요.

이) 개인적으로 해외 선택실습을 준비할 경우 미국의 경우 자격증이나 토를 점수 등 자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상호연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의학과 2학년 권나현, 정상현 학생기자〉

동아리소식



2022년 1월 26일~1월 28일 총 3일간 이화여대 의과대학 그림동아리 '그리민'은 의과대학 구름다리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는 작년 여름 방학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원데이 클래스 형식의 그림 수업에서 완성한 그리민 부원들의 그림이 전시되었다. 그리민은 매년 이화여대 본교 대산 갤러리에서 그림 전시회를 진행해왔지만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전시회를 열지 못했고 올해는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전시회 장소를 의과대학 내부로 변경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2년 만에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림은 의과대학과 이대서울병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에 전시되었으며, 구름다리를 지나며 전시회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미술의 세계로 들어오는 느낌을 선사하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회를 주도한 그리민 가장 조경은 학생(의학과 18학번)은 "지친 하루를 지내고 의과대학과 이대서울병원 사이를 지나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리민 부원들의 작품을 보며 힐링을 얻고 미소를 띠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보람차고 뿌듯했다"는 감상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점차 해결되어 더욱 큰 규모로 전시회를 진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민의 그림을 통해 작은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의학과 4학년 방윤지 학생기자〉

이화/바스젠바이오 비즈니스 모델경진대회 수상자 이진아 학생 (의학과 4학년)인터뷰



Q 이화&바스젠바이오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본과 3학년 말에 임상종합강좌라는 과목을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의료영역 적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분야들이 미래 의료 산업과 관련해서 워낙 각광을 받다보니 조금 더 흥미를 느끼며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시 준비나 졸업 후 수련과정 등으로 바빠지기 전에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회가 열린다는 공지를 접하게 되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전무했지만 대회 관련 소개 영상에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며 독려했던 학장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 조기 예측 마커 개발'이라는 아이디어로 수상하였는데, 이 아이디어의 구성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A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성 배경은 개인적인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데, 어릴 때 친

할머니께서 낙상으로 인해 갑자기 고관절 골절을 입고, 이후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 아파했던 한편,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왜 골절로까지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이후 골다공증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 '일찍부터 관리가 되었다라면 할머니께서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늘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영향으로 의대 진학 전부터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대회를 위해 여러 아이디어들을 구상하다가, 결국 저의 관심 분야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나, 대회 주제가 한국인 유전체 풀을 활용하여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골다공증 관련하여서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지 않았고, 이것이 골절로 까지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도전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Q 위 사업 아이디어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과 관련된 유전체 마커를 찾고, 이를 조기 진단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데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의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국내 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의 유병률이 가장 높은 그룹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해당 그룹의 유전체 특성을 연구하여 마커를 찾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찾은 마커를 유전자 검사에 적용하여 질병 발생 위험도를 계산해주고, 질병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병력과 생활습관까지 고려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2차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Q 이 아이디어로 기대되는 효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응증 해당 여부에 관계 없이 골다사질한 관련 검사를 받고, 한번의 검사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골다공증성 골절 관련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상용화된 많은 유전자 검사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인데, 다만 현재 골다공증 진단에 이용되는 골밀도 검사로는 조기진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활습관을 반영한 관리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학교를 다니며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 조금 더 과감한 도전을 하지 못했던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많은 것들이 풀리면서, 더 많은 배움과 경험의 기회들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과 공부 외에도,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예과 2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퇴임교원 인터뷰

백승연 교수는 의과대학 31회 졸업생으로, 이대동대문병원에서 수련의, 방사선과 전공의 과정을 거쳤다. 복부영상의학 전문가인 백 교수는 1993년 이대목동병원 개원과 함께 방사선과 교수로 발령받고 29년간 이화에 몸담아 왔다. 2022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영상의학교실 백승연 교수를 만나, 퇴임소감을 나누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정년 교실을 떠나게 되는데요,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감사합니다. 사실 퇴임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는데, 이번 1학기 의과대학 채플에서 퇴임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로 퇴임하는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오랜 기간 본교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로 근무하셨고, 의과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동안 보람찼던 경험이나 아쉬웠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A 영상의학과 교수로서는 많은 전공의들을 가르쳐 왔는데, 영상 판독을 어려워하던 1년차 전공의들이 술기훈련과 공부를 계속하며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의국은 매년 전공의 선생님들 전원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이에 대한 자부심도 큼니다. 2017년도까지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지도하는 학생들이 매년 1~2명 정도 있었습니다. 지도학생들과 학기마다 한번씩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학생들의 성격이나 경향 등을 알 수 있었고, 이런저런 조언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지도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잘 찾아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Q 올해 8월 말에 퇴임을 하시는데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을까요? 퇴임 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A 영상의학과는 초음파검사처럼 술기나 시술도 하지만, 영상 판독이 주를 이룹니다. 제가 전공한 복부영상의학은 판독이 가능한 세부전문기가 부족하여 정년퇴임 후에도 수요가 많습니다. 저도 퇴임 후 11월부터는 680병상의 종합병원에 복부CT와 MR영상을 판독하는 초빙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중 3일은 영상 판독을 하고, 다른 날에는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문화생활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합창단 활동을 계획 중이고,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13년간 동기 교수 4명과 함께해왔던 필라테스도 계속하고자 합니다.

Q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의과대학 채플에서 교수님의 말씀 중 동기 선배님들과 졸업 후에도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시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교수님께 의과대학에서 '동기'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A 저희 의과대학 31회 졸업생들 중에는 자신을 잘 내세우지 않는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모임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교 교수로 남은 6명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에서 격려하며 도와주었는데, 이것이 저의 29년간의 교수생활을 잘 마무리하

게 된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동기'란 내 인생의 동반자, 조언자, 조력자이며 남은 인생도 함께 가는 든든한 길동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자, 교수님의 후배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1학기 채플에서 말씀드린 4가지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 힘든 의과대학 생활 중에도 여유를 찾는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를 가집시다.
2. 자신이 관심있고 잘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합시다. 그러나 제 1 지망과에 선발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다양한 능력을 믿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3. 학생 때는 동기들, 의사가 된 후에는 동료들과 협동하여 일하고 연구합시다.
4. 기초의학 전공자 혹은 의사의 길은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그러니 일회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시다.

〈의학과 2학년 정상현, 의학과 4학년 방윤지 학생기자〉



백승연 교수
영상의학교실

신임교원 인터뷰



신수민 교수
흉부외과학교실

Q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신임교수로 부임한 신수민입니다. 저는 졸업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 전공의, 펠로우, 그리고 흉부외과 교수까지 약 1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모교를 떠나 있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Q 교수님께서 흉부외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처음 의과대학에 입학했을 때, 제가 원하는 삶의 목표는 일과 생활의 조화였습니다. 학교와 병원 밖에도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만 하고 놀 줄 모르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고 힘든 '외과' 계열의 전공은 생각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본과 3학년 여름 방학이 되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외과 서브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외과는 안 할 거니까, 경험 삼아 한 번 가보면 좋겠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전 6시 반에 시작한 일정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스크럽으로 끝이 났는데, 붓다 못해 통증이 느껴지는 다리를 보면서, '절대 외과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2주 간의 실습이 끝난 후에는 수술실 내의 열기, 청량한 공기와 살이 타는 냄새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강렬한 인상을 그리워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이니, 다시 해보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과 3학년 선택실습기간, 이번엔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실습에 도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꿀 2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져 본 심장, 새벽까지 이어지는 수술, 수술 후 시원한 맥주 한 잔 그리고 당직실 침대의 쿼퀴한 냄새까지, 가슴 깊은 곳에서 쿵쥔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몸에서 넘쳐나는 아드레날린에 의해 피곤함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꿈에서는 루페와 헤드램프를 쓴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제는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에 직업이 수없이

많지만 모든 일에 선의를 갖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게 흉부외과 의사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이화의대에 신임교수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수님께서 이화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처음 이화의대를 선택한 것은 이화가 여성 리더를 키워낼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흉부외과를 전공하기로 결정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임상 경험이 가능한 병원에서 수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의 16년은 흉부외과 의사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보고, 수천 건의 수술을 하면서 흉부외과 의사 개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이 이룬 것 같습니다. 사실 모교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많은 수술과 연구를 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의학을 접한 곳이자 제 가치관과 소양의 밑거름이 된 곳에서, 모교의 성장을 돕고 후배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건 그동안 이루어왔던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유수의 병원들에 이화의대 출신의 흉부외과 교수가 여러 분 재직 중인데 정착 이화의대에 이화 출신이 없다는 아쉬움도 한가지 이유가 되었습니다.

Q 최근 관심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공유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폐암입니다.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완치 후에도 수술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및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하면 당연히 폐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약간의 노력을 통해 기능을 보존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후로 흡입기를 잘 사용하고, 재활 치료를 하면 수술 전보다 폐기능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환자들이 자주 병원에 와야 하는데, 너무 규모가 큰 병원에서는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목동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모델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최근 폐절제술 후 acute lung injury로 치료 받았던 환자가 있었는데, 1달여의 재활 치료 후에 호흡곤란 증상도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심폐기능이 수술 전보다 더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접근성을 장점으로 살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화에 부임하고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가 동영상 강의였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강의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닌지, 이해는 잘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여러 학생들의 얼굴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고 즐겁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주의하고, 조만간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의예과 2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최은오 교수
병리학교실



Q 교수님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간단하게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학생 선생님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현재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신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최은오라고 합니다. 저는 2009년 이화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병리과 전공의, 전임의 1년의 수련을 마쳤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이대목동병원에 근무했고, 올해 3월에 신임교수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Q 이번에 신임교수님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첫번째로는 이대목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증례를 경험할 수 있어 개인적인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을 때 주변 교수님들 혹은 임상 교수님들의 지원도 잘 이루어지는 편이어서 근무환경이나 연구환경 모두 만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모교로 돌아와 후배들을 교육하고 모교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이화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느낀 점이나 인상깊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교수 생활을 시작하시고 달라진 점이나 이화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끼고 계신 감정 등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실 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를 겪게 되어서 학생들과 만나서 수업할 기회가 적어 아쉬웠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학생들이 힘든 스케줄에도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의대에서는 배울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강의를 하는데 저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학생 선생님들도 공부하기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면 학생 선생님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근래 하고 있습니다.

Q 병리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사실 학생 때까지만 해도 병리과를 지원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인턴 근무를 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지쳤던 것도 있고, 또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과를 하고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병리과를 지원했고, 사실 저도 지원하기 전에는 현미경만 보고 진단하는 과인줄 알았는데, 조 직뿐만 아니라 세포병리, 면역염색이나 분자병리, 근래에는 시키반 디지털병리까지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고, 수련기간 동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병원 일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연구도 같이 할 수 있어 지금은 저와 성향이 잘 맞다고 생각되어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Q 그 중에서도 신경병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실 소화기병리를 전공하고, 학위를 위암관련 논문으로 받아서, 소화기병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고 현재 소화기병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에 근무할 당시 뇌종양 케이스를 많이 보고, 그밖에 선천기형이나 신경 퇴행 질환을 경험하면서 신경병리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이대목동병원에 근무하면서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최근에 관심 있으신 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A 최근에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병리를 이용해 암의 정확한 진단,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 예측과 같은 환자맞춤치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병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저희 이대목동병원도 디지털병리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여 진단이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관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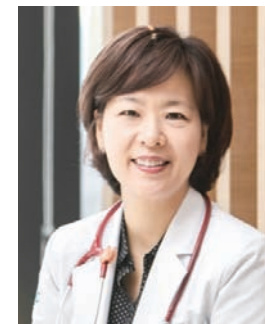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느라 굉장히 힘드실텐데요. 구태의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한 의료, 좋은 의료는 양질의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게 곧 환자를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대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만, 지나고 보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 동기들과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잘 해나시기를 응원합니다.

〈의예과 2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기획기사 | 이화-SCL 환경건강선도 연구 센터 설립과 소아, 여성 환경 검진 모형개발연구 이정원 센터장 인터뷰



2022년 3월 23일에 이화의료원, 이화여대,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이 공동으로 환경 건강 증진 연구를 수행하는 '이화-SCL 환경 건강 연구센터'가 개소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린이-여성을 포함하는 전 인류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건강증진 방안을 제시하리라 기대된다. 앞으로 여성 코호트 구축, 포스트 코로나시대 환경건강 제시와 건강검진 모형 개발 연구, 어린이 환경보건출생 코호트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새로 설립된 '이화-SCL 환경건강 선도 연구 센터'와 '소아, 여성 환경 검진 모형 개발 연구'와 관련하여 이화-SCL 환경건강선도 연구센터장인 소아청소년과 이정원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이화-SCL 환경건강선도 연구센터가 어떤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주요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간과 환경의 공존, 인간의 건강 위협에 대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자 등의 민감 취약 집단의 건강 영향에 대한 섬세하고 정교한 건강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실내외 대기오염 노출과 인체 질병 발생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및 홍수 가뭄 등의 기후 변화로 인한 초과 사망 및 감염병 발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선제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관리 방안을 연구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올바른 대응유도를 하고자 '이화-SCL 환경건강 선도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어린이 환경 건강클리닉 개설을 통한 클리닉 모형개발과, 여성 코호트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아나 여성의 경우 다른 연구에 비해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어린이 환경건강 클리닉은 한국 최초로 설립되는 소아환경건강전문 클리닉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성조숙증, 알레르기 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관한 클리닉 검진모형 개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어린이 질환과 환경물질 간의 연관성을 연구, 교육함으로써 국내 소아 및 여성의 환경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제적 환경연구와 교육을 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화-SCL 환경건강선도 연구센터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내분비교란물질, 환경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 등 위험도 계산 추정식을 고려하여 소아-여성 건강의 기준치를 마련할 예정이며 여성코호트를 구축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환경건강 솔루션 제시하고 전국적 네트워크 어린이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Q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구기관이 주목하는 과제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첫째, 생활 속 화학물질, 실내 외 대기오염 노출과 인체의 질병 발생과의 연관성 연구, 폭염 및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 발생 연관성 연구,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의 연관성 연구, 유전자-임상정보-환경노출 통합모형 구축을 통한 환자개별 환경유해인자 연관 질병위험 예측 연구를 주요 연구주제로 하여 환경건강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련분야 연구를 지원하여 사회적 측면에서 환경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적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셋째, 관련분야 연구로 검진 모형개발 연구, 유전자 및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 뱅크 등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환경연구의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Q 임상 의학과 환경 의학의 융합연구라는 측면에서, 이대서울병원, 국가보험공단 등의 임상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연구를 이끌어내는지 궁금합니다.

A 이화-SCL 환경건강 선도 연구센터는 임상 의학과 환경 의학의 융합연구 기반인 클리닉-연구소 연계 모형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환경클리닉 지침개발, 건강 솔루션 제시, 환경 검진 모형개발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경 의학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 의료 빅데이터와 연계해 빅데이터 분석, 인공 지능 분석을 수행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입니다. 환경 시스템 의학 연구로 국가 환경 빅데이터 연구와 의료 빅데이터 분석 기술 연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많은 가설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특히 건강검진자료와 EMR연동 및 외부 빅데이터에 기반한 연구 활용을 최대화하여 전 영역의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좋은 모형을 제시하고 학술적 성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과 건강에 대한 기초-임상 중개연구의 중심이 되고자 하며, 특히 어린이 환경건강 관련한 교육 및 상담 등의 환경보건 서비스를 선도하여 이는 스마트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등 스마트로 연구와도 접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미래의 의사 및 의학 학자를 꿈꾸는 이화의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최근 실내외 대기오염 노출, 기후변화와 소아의 질병 발생과의 중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 시기의 환경 노출에 의한 질환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이화-SCL 환경건강 선도 연구센터와 어린이환경건강 클리닉을 통하여 어린 시기의 환경 노출에 의한 질환을 관리하여 예방과 치료를 도모할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의사 및 의학 학자를 꿈꾸는 자랑스러운 이화의대 학생 여러분들의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학과 2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기획기사 | 이화 신진 펠로우 송태진교수 심층 인터뷰



올해 2월, 본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송태진 교수(이대서울병원 신경과)가 신진 이화펠로우에 선정되었다. 신진 이화펠로우는 최근 5년간 국제 특 A급 이상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우수한 연구실적을 거둔 신진 교수에게 연구와 학문 활동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이다. 20년 가까이 신경과 전문의로서 길을 걷고 있는 송태진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교수님께서 신경과를 전공하시고, 현재 뇌졸중, 뇌경색, 두통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연구하고 계신데, 이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저는 의과대학 학생시절부터 신경과학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와 신경학적 증상이 연관되어있고, 뇌가 인체 전반을 통제하는 것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소위 골든타임 질환으로 시간/분/초를 다투는 질환입니다. 제가 인턴일 때, 신경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초급성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자 직접 환자 침대를 끌고 다니시면서 열성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시는 모습, 의식도 없고 마비도 심했던 환자분이 혈전용해 치료를 받고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때부터 뇌졸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뇌졸중은 제가 열심히 하면 환자가 극적으로 좋아져서 환자와 보호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통은 가장 흔한 신경과 질환이지만 만성화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난치성 두통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약제 투여와 수면습관의 조절로 수년간 고생하시던 환자분의 두통을 해결했을 때의 보람과 성취감으로 두통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많은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는 어떤 것인가요? 또는 앞으로 더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다면 어떤 분야인가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로는 국책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구강건강과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병부담이 큰 질환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전신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질환들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불가능하여 예방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질환 중 당뇨병, 뇌졸중의 발생과 구강건강의 관련성에 관심이 있어 보건의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 양치질만 잘해도 당뇨병, 심방세동, 뇌졸중, 위장관계 암 등을 예방할 수 있음을 최초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논문들은 각각 분야별 상위 1% 혹은 IF 10점이 넘는 논문에 게재되었고, 제가 이번에 이화펠로우에 선정된 것도 이 연구 덕분입니다. 난생 처음 뉴욕타임즈에 영어 인터뷰도 해보았구요. 앞으로 더 연구해 보고 싶은 분야는 장내마이크로바이옴과 뇌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소위 Gut-Brain Axis라고 하는데, 여러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이 장에서 생성될 때 장내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노소포/엑소좀을 이용하여 뇌졸중/심방세동/심부전/만성콩팥병을 제어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이라 이 분야에 대해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합니다.

Q 교수님께서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도 하셨는데요, 연구가 특허출원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사실 제가 특허를 많이 출원한 사람은 아니라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출원한 특허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뇌졸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특허들과 뇌졸중 환자에서 음성패턴으로 삼각장애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새로운 방법론을 발견하게 되면, 아이디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내부/외부 검증(internal/external validation)이 성공적으로 입증되면 특허로 출원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사실 아이디어만으로도 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교수님께서 AI기반 영상분석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하셨는데요, 의학계에 AI가 현재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제가 해왔던 AI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언어장애를 치료하는 인공지능기반 디지털 치료제 개발입니다. 이번 에 이와 관련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AI 과제인 explainable/multimodal AI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학에 있어 AI의 도입은 시대의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에 AI가 도입된 후 심전도 파형만으로도 심장지 발생을 수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CT나 MRI 판독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질병을 진단할 때 의사를 보조하는 데에 머물러있지만, 향후에는 스스로 질병을 진단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AI, 더 나아가 의학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놓는 AI가 개발되어 의료영역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뇌졸중은 환자의 삶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진료나 연구를 하시다가 책임이나 부담을 느끼신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자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저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해드릴 수준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뇌졸중 전공하면서 밤새는 일이 허다하고 낮/밤 가리지 않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다보니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우리 이대서울병원을 방문하시는 뇌졸중 환자의 치료만족도와 예후를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고 싶어서 이 일을 하다보니 힘든 것은 금방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한분 한분이 어려모로 아주 뛰어난 분들이십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하다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대가가 되어 있으실거라 확신합니다.

〈의학과 2학년 정상현 학생기자〉

동문소식



노숙인의 슈바이처' 내과의사 최영아 동문 (44기), 제10회 성천상 수상

20여 년간 노숙인 위한 인술 펼쳐온 공로 인정



2022년 7월 4일 최영아 동문(44회 졸업생)이 제 10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성천상은 JW 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음지에서 묵묵히 인류 복지 증진에 공헌한 의료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최영아 동문은 지난 20여 년 간 노숙인을 위한 인술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하였고, 올해에는 제 10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Q 이번 제10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실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해오는 거라서 저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수상을 통해 학교 교수님들을 비롯한 많은 의료인 선배님들이 많이 기뻐해주셔서 저에게도 뜻깊게 다가오는 상이 되었습니다.

Q 선배님께서 2년 전 기자와 진행한 의과대학 소식지 인터뷰에서 '바보 짜장'과 MOU를 체결하여 smile box 2008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을 계획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전부터 계획했던 smile box 2008은 '바보짜장'과 협업하여 현재는 식당으로 자리를 잡았고 덕분에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여러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현장에서 하는 식당은 매장 운영이 어려워져 저희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방향을 모색하다가 온라인 쇼핑몰에 '빼빼유니 짜장'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주문해서 요즘 먹고 있는데 맛있더군요.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돌파구를 찾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이 저희 사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노숙인들을 그룹 홈에서 임대주택으로 연결해주는 과정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만만치 않더군요. 지난 2년동안 코로나와 여러가지 이유로 저희도 마냥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Q 선배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노숙인들을 도와주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난 인연들도 다양할 것 같아요.

A 지금까지 만난 환자분들 중 대부분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환자 대부분은 이전에도 저에게 진료 받으러 오다가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립병원으로 따라오신 분들이예요. 의료보호 1종에 해당되셔서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로 다일천사병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를 찾아주고 계신 환자분들도 계세요. 마더하우스나 회복나눔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사업을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분들과는 같이 봉사하는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같은 교회 멤버가 된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만난 모든 분들과 앞으로도 같이 만들어나가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Q 선배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비영리 단체도 노숙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제도적, 경제적 한계에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 노숙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궁금합니다.

A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던 2001년도에는 노숙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당시엔 공공기관보다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노숙인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했어요. 물론 그때도 시립병원은 있었지만,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사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죠. 2004년부터는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노숙인들에게 '노숙자증'이라는 것을 발급해주었어요. 이곳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진료의뢰서로 공공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노숙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어느 동에도, 어느 시에도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2010년에 그런 사람들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그후 노숙인들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이전보다 당당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죠. 노숙인들을 도와주는 여러 정부기관들이 생기면서 주민등록 전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주택도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노숙인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지원주택도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노숙인 환자들 관리수준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선배님처럼 의료 취약지역에 봉사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환자 곁에 있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의사도 환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환자들 이 알고 있는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들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것이 저에게는 좋은 훈련이 되었고, 그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국경없는의사회 등을 통해서 외국에서 여러 질병들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취약계층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싶으신 후배님들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된다면 다양한 취약계층 환자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해외의 다른 나라들,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다양한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만나면 이후에 취약계층 환자들의 진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학과 2학년 정상현 학생기자〉



언론에 비친 동문소식

본교, '제20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황연대 동창(12기) 선정

이화 창립 136주년을 맞아, 본교는 '제20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황연대 동창을 선정했다. '자랑스러운 이화인'은 이화여대 동창이거나 이화여대에서 장기간 봉직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올림으로써 이화정신의 귀감이 되는 분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황연대 동창은 1963년 이화여대 의학과를 졸업한 한국 최초 장애인 여의사이자 장애인 재활과 교육에 평생을 헌신한 인권운동가이다. 어린 시절 겪은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소아재활과 의사로 재직하면서 한국소아마비아동특수보육협회를 설립했고 이후 반세기 넘도록 장애인 권익 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다. 시상식은 5월 31일(화) 창립 136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되었다. 황연대 동창은 1975년 국내 최초의 장애인 이용시설인 '정립화관'을 세워 장애인들에게 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이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상근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고용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도록 힘썼다.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바람을 담아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때 받은 각종 상금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 쾌척하며 '황연대성취상'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집행위원,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고문 등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며 국내 264만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헌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화여대 동창회 '박에스더상' 김화숙(20기) 원장 수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회장 성시열)은 5월 21일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5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자랑스러운 이화의인 박에스더상' 김화숙 원장의 시상식을 진행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

드로 열린 이날 총회에는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하은희 이화의대학장,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등 약 100여명이 회원들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시열 회장은 "이화의 발전은 곧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일 것"이라며 "통일 한국을 내다보고 앞으로 세계를 리드할 대한민국을 위해 이화 동창들은 한마음으로 서로 도와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날 '자랑스러운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은 김화숙 원장이 수상했다. 김화숙 원장은 71년 이화의대 졸업 후 중앙의대 석 박사 과정을 거쳐 서초구의사회장, 대한위장내시경학회 고문, 이화의대동창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국립의료원 총동문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 의사수필가협회 고문, 대한의사협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박에스더상은 1900년 국내 최초의 여의사가 된 박에스더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이화의대 동창회원 중 70세 이상으로 학술, 진료 학술, 진료, 봉사 또는 사회 활동 등 각계에서 훌륭한 업적이 널리 알려져 많은 회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후생신보〉

SCL 헬스케어 백세연 본부장(42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SCL Healthcare(이하 SCL 헬스케어)는 신약 개발지원본부 백세연 본부장이 '2022년 세계 임상시험의 날'을 기념해 '임상시험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약개발 관련 국내 센트럴랩인 C-LAB (Central Laboratory)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왔

으며 우리나라의 임상 연구 수준을 높이는 토대를 제공하는 등 그 공적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백세연 본부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국내 의료진이 세계 임상시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센트럴랩으로 검체를 보내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15여 년간 임상시험분야 중 센트럴랩의 발전에 몰두해 왔다. 백세연 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국제적 수준의 신약개발임상시험 중앙검사실인 SCL 헬스케어 센트럴랩(이하 C-LAB)은 2006년 설립된 국내 최초 분석전문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현재까지 500여 건의 신약허가 임상시험과제, 다양한 검체분석 및 바이오마커 밸리데이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C-LAB은 지난 2019년 3월 국내 센트럴랩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해 메디컬 시험분야 국제표준 'ISO 15189' 인정을 2회 연속 획득했다.

〈M메디소비지뉴스〉

교수소식



〈이화의료원 제공〉

신경외과학교실 김명현 교수-이대서울 신경과
박진 교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공로상' 수상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과
신경외과학교실 김명현 교수,
이화의료원 유경하 의료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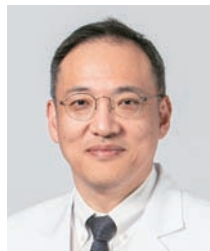
이대서울병원 임수미 원장,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박진 교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

신경외과학교실 김명현 교수(이대목동병원)와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박진 교수가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으로부터 '생명나눔 공로상'을 수상했다. '생명나눔 공로상'은 매년 장기기증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 의료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신경외과학교실 김명현 교수(이대목동병원)와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박진 교수는 뇌사 추정자 및 조직 기증자 발굴, 뇌사자 관리 등에 앞장선 공로로 이 상을 받게 됐다. 또 보호자의 기증면담 연계를 통해 장기기증의 송고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돕고 병원 내에서 기증자 중심의 뇌사 장기기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명나눔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 홍근 교수(간담체외과)가 드라마 기획 단계부터 장기이식 관련 자문을 제공했고, 이대서울병원은 드라마 속 '울제병원'으로 촬영 장소를 제공하는 등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 장기 이식 홍보에 앞장섰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드라마에서 장기이식 관련 에피소드가 나온 다음날 장기 기증 서약자가 400명 이상 몰려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홍보가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비뇨기과학교실 이동현 교수, 서울시장 표창 수상



비뇨기과학교실 이동현 교수(이대 비뇨기병원장) 20년간 이대목동병원에서 비뇨의학과 교수로 환자 진료와 수술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3월 25일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병원장은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시병원회의 '제1회 SP 자랑스런 병원인상' 수상식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이 병원장이 신의료기술인 인공방광 수술 개념을 최초로 고안·확보해 의학발전 및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이대목동병원에 이대비뇨기병원을 설립해 비뇨의학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이대비뇨기병원은 비뇨의학의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환자 치료와 수술을 담당할 것"이라며 "앞으로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 비뇨기계통 중 대질환 치료와 함께 비뇨의학 연구센터를 설치해 신 의료기술 개발 및 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학교실 신상진 교수,
대한건주관절의학학회 29대 회장 취임

정형외과학교실 신상진 교수(이대서울병원)가 4월 2일 대한건주관절학회 제2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신 교수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E에서 열린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총회 인준을 거쳐 학회장에 임명됐다. 대한건주관절의학회는 1993년 창립되어 올해가 30주년 되는 해로 회원수가 1500여명에 이르는 정형외과 분과학회이다. 신

상진 교수는 "대한건주관절학회를 통해 대국민 어깨 건강을 책임지는 학술 활동 및 임상 연구를 지원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건주관절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학회로 성장시키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또한 "젊은 건주관절 전문의들을 해외에 보내 선진 기술을 익혀 미래를 책임지게 하고 아시아 출신 정형외과 전문의들을 초청하여 국내 병원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어깨 수술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스포츠의학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신상진 교수는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듀크의대 스포츠의학 연구소 연구원 및 전임의를 거쳐 현재 이대서울병원 이화어깨질환센터장 및 관절척추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신상진 교수는 어깨 관절경 수술의 세계적인 대가로서 우수한 해외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최근 '어깨관절경의 예술'이라는 관절경 술기의 교과서를 집필해 출간했다.

산부인과학교실 김영주 교수, 한독여의사학술대상 수상



산부인과학교실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가 4월 30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여자의사회 66차 정기총회에서 제 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을 수상했다. 김영주 교수는 '고위험임신부에서 조산에 방을 위한 프로세스론 근주와 질정치료에 대한 다기관, 맹검시험 및 메타분석연구' 논문으로 상을 수상했다. 여의사회는 김 교수의 연구가 국내 모체 태

아의학 연구진들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중요한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조산에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수상의 미를 부여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산부인과 의사로서 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분만과 치료를 돕고 모성 및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는 것에 이바지하겠다"며 "이 상 또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라는 격려와 응원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영주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장, 고위험산모센터장, 조산예방치료센터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까지 2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30여개의 국내 특허와 국제특허를 보유하는 등 산부인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와 함께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이화여대 2022학년도
연구비 우수·연구실적 최우수 수상

학 과	성 명
의학과(환경의학교실)	하은희

의과대학 이화행림우수연구자상 수상

학 과	성 명	학 과	성 명
의학과(내과학교실)	천은미	의학과(방사선종양학교실)	김규보

신임교수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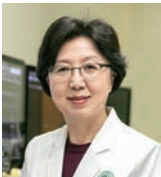
임용일 2022.03.01

학 과	성 명	학 과	성 명
의학과(내과학교실)	송은미	의학과(흉부외과학교실)	신수민
의학과(내과학교실)	조정민	의학과(정형외과학교실)	윤병호
의학과(내과학교실)	정민경	의학과(마취통증의학교실)	오혜원
의학과(소아과학교실)	이정원	의학과(진단검사의학교실)	박설희
의학과(신경과학교실)	장윤경	의학과(병리학교실)	최은오
의학과(외과학교실)	송승환	의학과(미생물학교실)	홍소희
의학과(외과학교실)	홍경숙		

임용일 2022.09.01

학 과	성 명
의학과(환경의학교실)	김이준

퇴임교수 명단

성 명	학 과	퇴직일	성 명	학 과	퇴직일
 유권	의학과 (내과학교실)	2022.08.31	 백승연	의학과 (영상의학교실)	2022.08.31

이화여대 2022학년도
신진이화펠로우 선정

학 과	성 명
의학과(신경과학교실)	송태진

의과대학 기금 안내 및 약정현황 명단

1. 의과대학 발전기금 (2022.01.01~2022.06.30. 기준 약정일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혁신적인 교육 과정 개발, 장학 관련 사업,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명	약정금액	회원명	약정금액
신애선 (의학 00졸)	2,400,000원	선재숙 (의학 72졸)	2,750,000원
강경희 (의학 72졸)	3,300,000원	심한기 (의학 72졸)	2,750,000원
경순표 (의학 72졸)	2,750,000원	이해순 (의학 72졸)	5,500,000원
김보경 (의학 72졸)	2,750,000원	전월화 (의학 72졸)	2,750,000원
김순자 (의학 72졸)	2,750,000원	전현숙 (의학 72졸)	1,650,000원
김애경 (의학 72졸)	2,750,000원	조정실 (의학 72졸)	2,750,000원
김애리 (의학 72졸)	2,750,000원	최혜란 (의학 72졸)	2,750,000원
김영순 (의학 72졸)	2,750,000원	함영은 (의학 72졸)	2,750,000원
김정진 (의학 72졸)	2,750,000원	황정미 (의학 72졸)	3,300,000원
김춘실 (의학 72졸)	2,750,000원	이봉애 (의학 72졸)	3,300,000원
김희경 (의학 72졸)	1,100,000원	심혈관건강증진 연구원	100,000,000원
서동선 (의학 72졸)	2,750,000원	-	-

※ 2022 의과대학 동창(30주년, 50주년 기념)의 후원금은 61호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2. 백분의일이나눔장학금 (2022.01.01. ~ 2022.06.30. 기준 약정일순)

의과대학 동창들이 각자 수입의 백분의 일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자는 취지로 모금한 장학금입니다. 의과대학동창회에서는 매해 연말, 200여 명의 회원들이 다달이 후원한 장학금 약 1억 2000만원을 의과대학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은희(의학78졸), 권계숙(의학90졸), 권정미(의학99졸), 길지나(이화가족), 김경호(의학83졸), 김광주(의학84졸), 김금미(의학89졸), 김문정(의학95졸), 김병선(의학84졸), 김보경(의학92졸), 김성희(의학87졸), 김수경(의학93졸), 김순화(의학78졸), 김연신(의학82졸), 김영선(의학94졸), 김영주(의학84졸), 김예미(의학과교수), 김예진(의학93졸), 김우선(의학90졸), 김윤희(의학78졸), 김지영(의학84졸), 김정숙(의학83졸), 김종원(의학79졸), 김지영(의학89졸), 김지호(의학89졸), 김진희(의학61졸), 김태경(의학84졸), 김태연(의학05졸), 김태임(의학74졸), 김한울(의학08졸), 김현영(의학78졸), 김현화(의학81졸), 김혜옥(의학84졸), 김홍희(의학88졸), 김화숙(의학71졸), 김효신(의학84졸), 남은미(의학93졸), 맹신숙(의학92졸), 문경원(의학02졸), 문규원(이화가족), 문용자(의학61졸), 문인숙(의학78졸), 민정혜(의학93졸), 박경숙(의학86졸), 박경화(의학84졸), 박규희(의학90졸), 박미연(의학89졸), 박미향(의학90졸), 박미혜(의학90졸), 박보영(의학05졸), 박선옥(의학74졸), 박성희(의학82졸), 박승희(의학89졸), 박연희(의학93졸), 박원애(의학90졸), 박은미(의학93졸), 박은애(의학88졸), 박재옥(의학75졸), 박정선(의학78졸), 박준범(의학과교수), 박진(의학09졸), 박혜숙(의학91졸), 박혜영(의학82졸), 박혜영(의학89졸), 방문혜(의학84졸), 배기선(의학99졸), 배순희(의학75졸), 배현아(의학00졸), 백세연(의학93졸), 백승연(의학82졸), 백승희(의학82졸), 백혜승(의학89졸), 백화정(의학83졸), 서동혜(의학95졸), 서란(의학82졸), 서시정(의전원13졸), 서의정(의전원15졸), 서정완(의학82졸), 서정

은(의학09졸), 서한나(의학10졸), 성시열(의학81졸), 손현주(의학84졸), 손희정(의학89졸), 송선희(의학77졸), 송현주(의학00졸), 신수아(의학93졸), 신정아(의학07졸), 신혜원(의학78졸), 신화자(의학78졸), 심소연(의학99졸), 심현(의학80졸), 안영호(의학과교수), 안혜선(의학84졸), 양나래(의학07졸), 양미혜(의학82졸), 엄대재(의학78졸), 오양재(의학65졸), 오혜숙(의학78졸), 우명숙(의학71졸), 우복희(의학63졸), 우소연(의학96졸), 우재희(의학07졸), 원혜성(의학90졸), 유경아(의학97졸), 유경하(의학84졸), 유금혜(의학00졸), 유동원(의학84졸), 유박영(의학74졸), 유시현(의학95졸), 유신애(의학69졸), 유채섭(의학84졸), 윤명인(의학78졸), 윤석애(의학71졸), 윤석완(의학76졸), 윤소윤(의학07졸), 윤수진(의학90졸), 윤혜원(의학80졸), 이경숙(의학82졸), 이국희(의학89졸), 이귀용(의학78졸), 이남경(의학89졸), 이남희(의학79졸), 이령아(의학92졸), 이명희(의학90졸), 이미애(의학82졸), 이순남(의학78졸), 이순재(의학75졸), 이승희(의학84졸), 이연주(의학90졸), 이영숙(의학76졸), 이영은(의학90졸), 이예경(의학82졸), 이용주(의학77졸), 이윤하(의학91졸), 이은엽(의학75졸), 이재옥(의학76졸), 이재현(의학79졸), 이재현(의학80졸), 이정엽(의학82졸), 이정원(의학98졸), 이종민(의학80졸), 이지희(의학84졸), 이진숙(의학78졸), 이향운(의학93졸), 이현경(의학96졸), 이현주(의학석사07졸), 이혜영(의학77졸), 이훈주(의학07졸), 임석애(의학91졸), 임선영(의학82졸), 임원정(의학89졸), 장은경(의학90졸), 장혜숙(의학75졸), 전영미(의학82졸), 전혜진(의학05졸), 정미경(의학84졸), 정민경(의학10졸), 정성애(의학91졸), 정성철(의학과교수), 정연정(의학90졸), 정윤희(의학74졸), 정은숙(의학84졸), 정은주(의학90졸), 정인숙(의학77졸), 정주혜(의학97졸), 정지아(의학93졸), 정혜선(의학05졸), 정호인(의학90졸), 조기영(의학02졸), 조혜경(의학04졸), 주문희(의학70졸), 주미련(의학74졸), 주재분(의학77졸), 차순자(의학60졸), 채살아(의학96졸), 최옥경(의학90졸), 최원주(의학79졸), 최윤희(의학99졸), 최은경(의학89졸), 최의숙(의학77졸), 최지하(의학01졸), 최현숙(의학82졸), 최현주(의학87졸), 최혜영(의학85졸), 피상순(의학84졸), 하은희(의학87졸), 한경원(의학84졸), 한기정(의학89졸), 한승혜(의학96졸), 한지윤(의학75졸), 허금희(의학89졸), 허양임(의학05졸), 허정원(의학92졸), 홍기숙(의학80졸), 황은미(의학01졸)

3. 기타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2022.01.01~2022.06.30. 기준 약정일순)

기금 분류	기금명	기부자	약정금액
장학 기금	연구활동장려장학금	윤주천 (의학과 교수)	3,900,000원
	연희장학금	주정신건강 의학과의원	12,000,000원
	연구활동장려장학금	윤주천 (의학과 교수)	3,900,000원
	강영빈장학금	윤영희 (의학 70졸)	12,043,970원
발전 기금	International Ministries with Women, Children & Youth Scholarship	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nited Methodist Women)	25,901,858원
	의과대학사랑스런기금	김수민	2,000,000원
	산부인과학교실 발전기금	김승철 (의학과 명예교수)	5,000,000원
	이화의대연구기금 (Ewha Medical Research Fund)	한복순 (의학 83졸)	30,000,000원
발전 기금	이화의대지 발전기금 (The Ewha Medical Journal Fund)	하은희 (의학과 교수)	5,000,000원

의과대학 발전기금 안내

여러분의 후원은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마중물이 되어주고, 세계적인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의 기틀이 될 '연구기금'과 우수 여성 의과학자 및 의료인에게 힘을 실어줄 '장학기금', 첨단 의학교육환경을 위한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위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발전기금 후원자 예우

공통 예우

- 후원 감사선물 및 카드 증정
- 모바일 뉴스레터/생일축하카드 발송
- 기부자 명예의 전당(디지털월)에 이름남김
- 이화달력 및 성탄카드 발송
- 이화소식/대외협력처 연간보고서 발송
- 후원자 ID카드 발급: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이화여대 의대 발전기금

- 교내시설: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샵(5%), 박물관 기념품샵(10%), E-feel(5%), 도예연구소 작품(10%), 출판문화원 도서(5~10%), 이화인의 나눔가게(10%)
- 편의시설: 닥터로빈(5%), 교보문고(5%), 구내안경점(10~20%), 두레주르(10%), 카페 블루팻(5%)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Tel** (02)3277-2927,3969 **Fax** (02)392-3473 **Homepage** <http://giving.ewha.ac.kr>

의과대학 행정실 **Tel** (02)6986-6013, 6014 **Fax** (02)6986-7000 **E-mail** mediewha@ewha.ac.kr

※ 후원자는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예우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이령아(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심성신(정보관리차장), 이효진(의과대학 행정실)

학생기자단 권나현(의학과 2학년), 방윤지(의학과 4학년), 이예린(의예과 2학년), 정상현(의학과 2학년)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식지를 우편 또는 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Tel:** 02.6986.6007



이화의대 학생홍보단 이의랑